

문화

행복한 책임기

김탁환·강영호의 '99' <살림 刊>

흥대 앞, 드라마라 사진관이 있다. 어둠침침하고 미로와 같은 복도는 길을 잃기 십상이다. 건물 꼭대기에는 유령선이, 지하에는 관이 있다. 관 속에서 시체가 일어난다 해도 일상처럼 보일 정도다.

사진관 주인, 강영호는 자신의 몸에 사진기를 부착한 채 춤을 추면서 괴물을 프레임에 가둔다. 그렇게 탄생한 전장지는 괴물 이미지들, 그리고 플라 '99'로 압축한 것이 그대로 책 제목이 된다.

이미지는 한 사람이면서도 여럿이다. 푸른빛에 가득 기괴한 드레스를 입고, 아몬드를 몸에 끼얹고, 본드처럼 끈적이는 액체를 몸에 뿌린 채 거미줄 같은 그것을 뚫고 나갈 것처럼 발버둥 친다. 어깨 쪽지에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몸짓을 한다. 하늘로 치솟듯

는 순간 이것 외에는 즐기며 고통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괴물과 조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늘 그렇듯 괴물은 인간과 아주 오랜 세월 공존해왔다. 인류의 심층 깊은 곳에서 언젠가 불러줄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다.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괴물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 무한한 창조력으로 그를 달래 주어야 한다.

등단 39년을 맞아 39번째 장편 소설을 펴내고 50년 만에 귀향한 어느 노작가도 이렇게 말했다. "내 안에는 늙지 않은 짐승 한 마리가 사는 것 같아요. 창조적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괴물

무스로는 고정시킨 머리, 낮은 정장처럼 한쪽이 막힌 안경을 낀 괴물은 "당신"을 노려보기도 한다.

강영호가 자신의 내부에 자리 잡은 괴물을 이미지로 옮겼다면 김탁환은 이야기로 만들었다. 이미지와 이야기는 그로테스크를 지향한다.

김탁환은 말한다. 서울이라는 곳이 거대한 괴물처럼 보인다고. 밤하늘을 수놓는 네온사인 빛처럼 저마다의 욕망을 가지고 꿈을 거머쥐어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져 나오는데 불능의 도시, 이를 수 없는 욕망으로 기형아가 된 그곳은 중독성이 강하다고.

기형아가 된 괴물과 같은 이들은 "흡연"을 한다. 자신의 혼을 빨아들이는 한 장 사진(글)으로 완성한다. 타인의 권유나 유혹 때문에 사진 찍는 것(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지 않는다. 카메라(펜)를 드

자아라고 해도 좋을 그 짐승은 나이도 없고, 시간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쓰지 않으면 생활을 뚫고 나와요. 안 쓸 수가 없죠. 저는 살려고 글을 써요. 스스로 그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노작가의 생활을 뚫고 나오는 짐승은 강영호의 사진에서, 탁월한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김탁환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창조에너지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늘도 영원히 늙지 않은 괴물의 말에 순종하며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작업이야말로 이들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 이유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예술로 승화되는 이 괴물은 예술가의 주면에 불려온 예술혼일까, 애초 있었기에 그 사람은 운명적으로 예술가가 되는 것일까. 문득, 끝도 없는 질문을 던져본다.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대인시장 '미테 우그로' 태국 방콕에 창작공간 'Zone D' 마련

지역작가 해외진출 베이스캠프 역할 기대

광주 젊은 작가들의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 기지가 태국에 만들어졌다. 관(官) 주도가 아닌데다, 비주류, 아웃사이더적인 공간인 대인공간과 기업 메세나 활동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 대인시장 내 대인 예술공간 미테 우그로(Mite-Ugro)는 최근 태국 수도 방콕 중심가 카오산 로드 인근에 'Zone D'라는 창작 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활동할 작가 공모에 나섰다.

조승기씨 주도 영무건설 후원... 스튜디오 꾸며 모든 장르 예술가 대상 공모... 항공료 등 지원

으로 기회가 적은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작가간 교류를 통한 지역 미술 활성화'를 내건 미테 우그로의 태국 버전이다. '좋은 디'라는 전라도 사투리의 '세련된' 영어식 표현으로, 순우리말 밑에의 '미테'와 위쪽의 사투리 '우그로'를 합친 '미테우그로'와 닮았다.

3층 건물의 1층은 작가가 교류가 이뤄지는 커뮤니티 카페와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2층은 작가들이 머무르면서 창작·리서치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스튜디오로 꾸며졌다.

미테 우그로 대표이면서 큐레이터

인 조승기씨는 "이달 내 입주작가, 기획자 공모를 거쳐 12월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참여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젊고 실험적인 지역 예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미술·음악·문학 등 모든 장르 예술가를 대상으로 했고 독립 큐레이터, 기획자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다른 장르 예술가들이 한데 섞이면 창조적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등을 깨닫는다"는 판단에서다.

선정된 참여 작가·기획자에게는 6개월간 머무를 창작 공간, 항공료를



광주 대인공간 미테우그로가 태국에 마련한 'Zone D' 내부 전경.

작가들의 창작 공간 제공 및 전시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닌, 기획자 발굴, 워크숍·세미나 개최, 세계 대인공간과의 교류까지 추진하는 등 재능 있는 젊은 작가 발굴 뿐 발굴된 작가의 국제 교류 활성화까지 역할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지역 조그만 대인공간이 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 대표가 아파트 내 창작 스튜디오 조성에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벌어들인 돈과 (영무건설·토건)의 메세나로 마련했다. 열악한 지역 미술 시장, 비상업적

인 대인 공간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조 대표는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을 꺼린다. "작가였고 전시 기획자로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만 했다.

"자생과 독립"을 목표로 한 만큼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컸다. 조 대표는 "대인공간이 영세성을 드러내는 순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도 했다.

미테우그로는 지역 작가를 우선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점차 문호를 국내외로 넓힐 계획이다. 또 비엔날레 등 대규모 전시의 경우 기획자가 작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광주가 예술가에 비해 기획자·큐레이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독립 큐레이터와 기획자 육성에 집중한다는 구상도 세워 놓고 있다.

조 대표는 "젊은 지역 작가들을 발굴,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을 쏟아야 진정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을밤 품바타령으로 웃어보자

김승덕 타령 콘서트, 22~23일 콘텐츠산업지원센터

김승덕(사진) 타령 콘서트 '웃는 소리'가 22~23일 오후 7시30분 광주 콘텐츠산업지원센터(옛 KBS 광주주방 송송국)에서 열린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 김씨는 '품바'와 인연이 깊다. '품바'의 창시자인 고(故) 김시라 선생에게 품바타령 및 연출을 전수받은 그는 지금까지 무려 2600여회나 품바 공연을 가졌다. 현재 극단 '쟁이마을' 상임연출과 대표로 있는 그는 한국품바타령보존회 대표도 맡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김씨는 걸인들이 불렀다고 해서 전시받았던 작약타령(장타령, 각설이 타령, 품바타령)만을 모아서 들려준다. 비나리로 문을 열

며 지옥타령, 팔도 장타령, 걸자 타령, 심청이 타령 등 구전곡, 김시라와 김씨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이 레퍼토리다.

김용웅·강현미·김소연·이정민·전영선 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올해 고향인 광주로 돌아온 그는 김승덕 작약연희놀이 연구소를 오픈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2-373-56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방체험부터 난장콘서트까지

22~24일 예술의 거리서 '공동문화예술제'

예술의 거리에서 문화 난장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대 아트스페이스센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술의 거리 일대와 공동주최 특별 무대에서 공동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지난 8개월간 진행했던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예술제다.

22~23일(오전 10시~오후 6시)에는 다도, 전통한지공예, 물레질, 골동품 감정 등 예술의 거리 5개 공방을 체험할 수 있는 '감축'이 운영된다. 또 다원공간 '스

톤텐지' 등에서는 '아트 토크(ART TALK)'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4일 오후 2시에는 야외무대에서 14회 야외경매가 열린다. 이번 경매에서는 남농 허건 화백의 '죽(竹)' 등이 출품된다.

오후 5시부터는 공동주최 특별무대에서 '풀하우스' 등 8팀의 난장콘서트가 열리며 아트 상품과 먹거리 장터 등도 진행된다. 그밖에 미디어 야경 두 번째 이야기로 애플 로고, 레고 등 10개의 오브제가 상영되는 오브제 맵핑이 선을 보인다. 문의 062-471-1515. /김미은기자 mekim@

온라인서점 '대교리브로'

다음달 31일 문 닫는다

한때 온라인 서점 5위를 달리던 대교리브로(www.libro.co.kr)가 업계 경쟁에 밀려 문을 닫게 됐다.

1997년 국내에 온라인 서점이 처음 등장한 이래 '빅5' 안에 들던 곳이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교육 기업 대교는 지난 20일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31일 대교리브로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교리브로 신규 회원 가입은 21일부터 중단되고 도서 주문은 다음달 21일 마감된다.

대교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은 300억원을 웃돌았지만 수익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대원여행사) featuring train travel packages for winter. It includes details about ticket prices, travel dates (12/24, 12/31, 1/11-12, 1/18-19, 1/25-26), and contact information (062)526-7000.

Advertisement for Geumsoojang Hotel Arirang House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 It promotes a 2012 year-end gathering, highlighting the hotel's location, food quality, and services. Contact info: (062)525-2111.